

# “광주에 짓겠다던 친환경차 부품공장 울산 가나”

### 지역 노동계 “비정규직 양산 울산형 일자리 폐기해야” 주장 광주시 “모비스 공장 전국 여러개... 부품공장 반드시 광주로 와”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2일 오후 “(노동계가 우려하는)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은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이후에 반드시 광주에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노동계가 ‘울산형 일자리’의 반대 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지역을 생각하는 충정을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들과 함께 광주에 조성하기로 한 친환경차 부품공장이 결국 울산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울산형 일자리를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처음에 경형 SUV로 시작하지만 향후 친환경차 등 파생모델을 염두에 두고 공장도 유연하게 설계가 될 것”이라며 “현재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마당에 부품공장이 들어서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에 투자하는 현대모비스는 소위 전장부품의 물량 배정 계획에 의한 것”이라며 “법인 설립에 이어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부품공장이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광주 것을 빼앗아 가느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현대모비스 공장은 국내에 여러 곳 있다. 광주의 경우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 가동 이후 부품공장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자

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울산형일자리에는 현대차그룹 부품제조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33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사업이다. 광주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투자 촉진형’ 일자리 사업이다. 현대모비스는 올 9월 부품공장 착공에 들어가 내년 7월 준공 이후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일 전기차 구동모터와 배터리 시스템 등 주요 부품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시장은 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법법인 신설과 관련해 “이달 중 회사가 설립된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완성차 공장 법인설립이 늦어진 데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이달 중 법인 설립과 전체 일정에 지장이 없다”며 “현재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일부 투자사에서 이사회 절차를 거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투자자는 광주시와 현대차를 포함해 모두 5~6개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일부 투자자 이사회 결론이 나오지 않아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자본금 2300억원을 조달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옵션이 없

는 보통주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할인율이나 원금 회수 기간 등을 옵션으로 제시한 투자자를 받게 되면 법인의 초기 안정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 100% 옵션이 없는 보통주를 받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 투자유치 보조금(인센티브) 외에 정부 차원의 지원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광주형일자리 사업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체계, 사회적 복지의 내용은) 현재 일자리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등 광주지역 노동계가 1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형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남해안 토산어종·해수관상어 한 눈에 본다

###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3년간 리모델링 오늘 개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매년 관광객과 지역민 60만 명이 찾는 ‘해양수산과학관’이 지난 3년여 동안 전시시설을 현대화하고,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볼거리를 갖춰 13일 정식 개관한다. 1998년 5월 개관한 해양수산과학원은 36종 1만2000마리의 남해안 토산어종, 해수관상어 등을 전시하고, 직접 만져보며 느낄 수 있는 체험수족관이다. 그동안 가족단위 관람객, 청소년,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전시시설 노후로 폭넓은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실내·외 전시장을 쾌적한 시설로 조성, 독창적으로 해양생태·체험교육 장을 제공하는 전시시설로 새롭게 단장했다.

터널수조, 로봇수조 등 특별한 어류 전시 공간과 미술목 해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외데크를 설치해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즐겁고 아름다운 힐링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시시설 확충공사를 통해 수산생물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수산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오늘 광주서 실무자협의회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광주지자체 실무자협의회가 13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는 광주·대구시, 전남·전북·경남·경북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경유지 기초지방자치단체(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달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 성격이다.

참석자들은 포럼 준비를 위한 지자체별 업무를 협의하고, 지난달 착수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 용역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올해 정부예산으로 확보했으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관련 용역을 착수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광주-대구 달빛내륙 철도가 건설되면 최고 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어 영호남이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1300만명 규모의 동·서간 인·물적 교류 촉진은 물론, 산업구조가 연계돼 일자리 창출과 관광특화사업이 보다 원활해지고 초광역 남북경제권이 구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천 12km 구간 국가하천 승격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동구 학동 중심사천 합류 지점에서부터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 지점까지 광주천 12km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짧은 시간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도심 하천의 홍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광주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광주천을 비롯해 15개 도심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새롭게 승격됐다. 광주시는 지난 5년간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광주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해왔다. 광

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치수 대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해 예방 사업과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광주천의 제방, 우수관로, 보, 낙차공 등을 관리하게 된다. 시는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인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승국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은 “국가하천 승격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막대한 치수 사업비와 하천 유지 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천을 문화·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정비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마스터즈 참가 외국인 광주 맛·멋·흥에 빠져들다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단과 가족들이 광주의 맛과 멋, 흥에 흠뻑 빠져 들고 있다. 마스터즈 대회 기간 운영 중인 각종 관광상품에 외국인 선수단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선수촌 웰컴센터에는 관광 상품을 예약하려는 선수와 관광객, 동호인들로 연

일 붐비고 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광주의 풍경과 문화·예술을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상품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회 시작 전날인 4일부터 11일까지 193명의 시티투어와 타쇼(TASHOW) 관광버스 상품을 이용했다. 수구와 아티스틱 수영이 마무리된 10일 하루에만 67명이 불리는 등 경기를 모두 끝낸 후 관광에 나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무등산과 전통사찰을 둘러보고 한옥, 다도, 한복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타쇼 투어버스에는 매일

20명이 넘는 외국인이 찾고 있다. 중·장기 패키지여행도 인기다. 협력 여행사들의 남해 관광 상품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월부터 11일까지 관광협회와 협력 여행사의 각종 패키지여행 상품에는 298명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무등산 호수생태원, 중심사 입구에 위치한 전통문화관, 광주향교 내 전통문화 체험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무시민공원 내 172석 규모의 공연마루 국악 상설공연에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시티투어 관광상품 인기  
사찰·한옥·다도체험도

체험하려는 외국인들의 관심이 잇따르면서 하루 75명의 외국인 관람객 기록도 세웠다.

최대 규모인 3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경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번 주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순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남은 대회 기간에 만반의 준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통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박관식 대표 부동산 大 세미나!

# 불안한 부동산시장 순천 · 전라도지역 아파트, 부동산 시장 大전망!

소액으로 월세받는 황금노른자위를 찾아라!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토지보상금 “25조”+ 정부24조원 예비타당성 면제  
3기 신도시의 발표이후 아파트 부동산 大 전망!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 강의내용

- 수도권 및 지방 주택, 아파트시장의 전망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2019년 정부정책에 따른 최고 유망지역은?
- 지역균형발전비용 “175조” 투자유망지역 대공개
-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법 특강!

### 행복한부동산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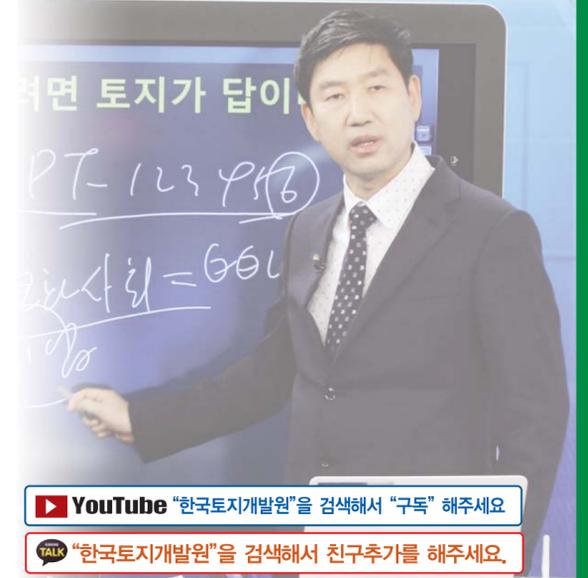
### ▶ OBS TV “행복한부동산 연구소” 출연중!!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55분 방송 출연중)

###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순 천**

- 일시 : 2019년 8월 14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순천시 순천로알 웨딩홀 3층 백합홀 (전남 순천시 장천동 15-11)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특별 무료상담 진행



▶ YouTube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구독”해주세요

TALK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주세요.